

“반드시 살아돌아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쳤습니다.”

“가슴 찢어져도 희망 버리지 않아”

전남 실종 아동 가족들의 처절한 나날

경기도 안양 이혜진(10)·우예슬(8)양 살해 사건과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거리면서, 전남지역 장기 실종 어린이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을 또 한번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수 년 동안 자식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심신이 모두 지친 이들 대부분은 경찰의 재수사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실낱같은 희

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2001년 6월 강진군 강진읍에서 하 곳길에 실종된 김하은(당시 7세)양의 아버지는 “당시 하은이가 실종된 이후 아내가 마음에 병을 얻어 고생하다 겨우 치료했다. 그런데 또 다시 실종 아동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병세가 도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마다 부모들의 심정은 찢어진다.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1995년 7월 나주 노안면 아영장에 서 1박2일 일정으로 유치원 여름캠프

에 참석했다가 실종된 박상미(당시 6세)양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상미가 똑똑해서 옛날 집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그 전화번호를 지금껏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양의 가족은 이번 경기도 안양 우예슬·이혜진 양의 사건 직전 또 한 번의 큰 고통을 겪었다. 동사무소로부터 박양의 주민등록증 발급 통보를 받은 것. 박양이 실종자임에 따라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종 당시 6살배기 꼬마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것이다. 박양의 가족은 “당시 주민등록증 발급 통보를 받고 가슴이 무너졌다”고 탄식했다.

한편, 지난 2000년과 2001년 6월 잇따라 강진에서 실종된 김성주(당시 6세)양과 김하은양 사건 재수사에 나선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실종아동전담팀은 1일 강진경찰서에서 수사 방향 등을 협의했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 서류 검토와 함께 김하은·김성주양이 다녔던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경찰은 박상미양 사건과 1997년 4월 영암에서 실종된 변유정양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지 수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이라 경찰의 수사에 급진전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권일·박진표·안현주기자 cki@



불안한 등하곳길 경기도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과 일산 어린이 폭행사건으로 학부모들의 자녀 등하곳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학원 앞에서 한 학부모가 초등학생 저학년인 딸의 손을 잡고 학원 앞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

40분간 아파트 돌며 범행 대상 물색

일산 납치 미수 피의자 10년전에도 동일 범죄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인 일산경찰서 수사본부는 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이모(41)씨가 사건 당일 대화동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서 사건에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김사용 수

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범행 40분 전인 3월 26일 오후 3시4분부터 302동과 402동 등 4개 동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 씨가 성폭력 의도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사전에 아파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행과 위협을 가해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치 미수범 이씨는 10여년

전에 5~9세 여자아이들만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했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9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을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수사본부는 여대생 A씨에게 음감한 시민상을 수여하려 했지만 A씨가 이를 고사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연합뉴스

“성범죄자 알아야 애들 보호하지”

‘신상 공개법’을 2월 이후 법인만 공개

경기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에 이어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나 지난 2월 발효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사실상 유명 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의 피의자인 이모씨가 아동 성폭행 전과 자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주지 인근 지역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어렵다.

이같은 제도적 문제점은 지역 내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이 지난 2월 4일 발효됐으나 열람대상자를 법 발효 이후 성범죄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13세 미만 청소년 성

폭력 범죄자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폭력 제외) 중 재범 위험성 있는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법안 발효일인 2월 4일 이후 발생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확정판결을 받아 형집행이 종료된 자에 한정했기 때문에 열람대상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딸을 둔 학부모 이모(36·북구 문흥동)씨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재발률이 높다는데, 성범죄자를 미리 알아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며 “하고 시간만 되면 불안하다. 누굴 믿고 아이를 맡겨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473) 김장동



납치 공포에... 이웃간 범행 오인 주먹질

최근 경기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 납치 공포가 이웃주민들간에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광주북부경찰은 1일 이웃주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정씨(4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5분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12)군 등 2명에게 집에 들어갈 것을 종용했는데 이를 본 윤모(49)씨가 “모르

는 애들을 왜 부르냐”고 따지자 윤씨의 목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이군 등이 밤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귀가시키려고 불렀으나 이를 본 윤씨가 마치 납치범 대하듯 하자 화가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평소 이군 등에게 겁박을 사줄 정도로 안면이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납치범으로 몰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화살 맞을까... 도둑 놓친 경찰 노심초사

경기도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으로 경찰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낮 빈집털이범을 주민들 앞에서 놓쳐버린 광주북부경찰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 역전지구대는 1일 오전 11시16분 조모(여·58·북구 누문동)씨로부터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역전지구대 직원 2명은 곧바로 출동했으며, 북부경찰 기동반 형사들도 현장에 나섰다.

형사들은 밖으로 피해있던 조씨와 함께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를 눈치챈 빈집털이범은 뒷담을 넘어 주택가 골목길로 도망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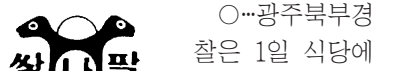
경찰은 이후 20여분 동안 범인의 뒤를 쫓는 추격전을 벌였으나 놓쳤고, 밖에 나와 있던 주민들은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다.

걱정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 발생 당시 안일한 초기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질책한 데다 일산경찰 담당직원 6명이 직위해제되자 혹시 미칠지 모르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북부경찰 한 직원은 “벌겋도 아닌 일로 화살을 맞을까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물수건에 고춧가루 묻었다” 행패



○광주북부경찰은 1일 식당에서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이모(44·북구 운암동)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5시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해장국집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던 중 “왜 물수건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느냐. 구형에 신고하겠다”며 주인 김모(여·42)씨에게 욕설을 하고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에게 준 물수건으로 손바닥을 닦던 중 고춧가루를 발견했는데, 경찰에서 “청결을 유지해야 할 식당의 물수건에서 이물질이 묻어나오자 짜증이 났었다”고 진술했다.

○담당 경찰은 “최근 이물질이 섞인 음식물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괜한 이유로 트집을 잡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종형 기자 golee@

(주) 조이트레블
234-3222

더욱 가깝게 - 더욱 차별하게 -

무안 국제공항에서 떠나는 새마을여행

5월 기념특별! 황금여행

무안 - 마키오, 홍콩 직항

마키오 중형 실린, 주매, 방목

2008. 5. 1 - 5. 28 (총 9회)

가정의 달! 5월 황금연휴 상품!!											
마키오/홍콩/심천 3박 4일	2.5	1.1	749,000	1.5	15,000	749,000					
마키오/홍콩+다즈니랜드 3박 4일	2.5	1.1	869,000	1.5	15,000	789,000					
마키오/홍콩/심천+세인트루이 4박 5일	2.5	1.1	749,000	1.5	15,000	739,000					
마키오/홍콩+심천+다즈니랜드 4박 5일	2.5	1.1	899,000	1.5	15,000	849,000					
한국여행+마키오/마키오 4박 5일	2.5	1.1	549,000	1.5	15,000	539,000					
주매 무제한 골프 90H 3박 4일						1.5	1.1	799,000	1.5	15,000	599,000
주매 무제한 골프 126H 4박 5일						2.5	1.1	749,000	1.5	15,000	549,000
주매 황금 골프 3박 4일 36H+마키오관광						1.5	1.1	1,049,000	1.5	15,000	949,000
주매 황금 골프 4박 5일 54H+마키오관광						2.5	1.1	1,049,000	1.5	15,000	999,000

무안 - 마키오, 홍콩 직항

(주) 조이트레블 대표 전화 (062) 234-3222